

모래 인정

김두필수필집

민족출판사

김 두 필 수 필 집
모래인정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啊, 人情 /金斗弼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6. 5
ISBN 7-105-07689-5

I. 啊... II. 金... III. 散文-作品集 - 中国- 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48170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5月第1版 2006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8

字数: 200千字 定价: 20.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e56.com.cn>

2006년 5월 제1판 2006년 5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자: 8

자수: 200천자 값: 2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김 두 필 수 필 집

모래인정

■ 서 문

김 철

수필이라는것이 뭘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가 삶의 속삭임이라는것을 나는 믿고있다. 시와의 자매편, 나는 그것이 항상 줄글로 쓴 시라고만 믿고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근래 한국의 시들을 보면 수필식으로 쓰는 시들이 많아지고 시와 수필의 계선이 흐리마리해지는것 같다.

시인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수필을 각별히 사랑하고 거기에 무척 관심을 두고있다. 그래서 내 친구들가운데 누가 수필 집을 펴냈다 하면 시집 한권 출판한것만치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싶은 마음이다.

이제 김두필씨의 수필집이 곧 출판되게 된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가 나의 좋은 문우(文友)라는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사회에 훌륭한 새해 선물을 이바지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새해에 들어 그는 진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하였다. 그의 선물은 우리 조선족문단의 부흥에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김두필씨는 문인이자 출판인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사업을 위하여 여러모로 큰 공헌을 했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우리

민족 문화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면 그속에는 김두필씨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을것이다. 그는 또 《은하수》, 《초중시절》 잡지의 주필로서 훌륭한 잡지를 꾸리고있을뿐만아니라 해마다 한번씩 글짓기잔치를 벌려 많은 재간있는 후배문인들을 양성하고있다.

나는 몇번 그들의 글짓기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 김두필씨를 비롯한 출판사일군들의 숨은 노력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문단의 꽃을 가꾸고 미래를 키우는 훌륭한 원예사들이였다.

나는 김두필씨의 수필집(초고)을 읽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수필집의 원고들을 읽고난 나에게 강한 인상을 준것은 이 책이 단순한 생활의 감성로출이 아니라 문학으로 다듬어진 인생철학이라는 점이다. 그의 많은 수필들에 철리가 담겨져있어 독자로 하여금 많은것을 사색하게 한다. 잊을수 없는 고향의 현황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대하여, 이미 타계한 문단의 친구들에 대하여, 농촌간부에 대하여, 치부에 대하여, 꿈에 대하여... 사회의 많은 일과 인물들에 대하여 그의 시선은 그리 고르롭지만은 않았다. 사회생활의 긍정면과 부정면, 시장경제시대의 그늘진 구석, 인간의 룰리와 도덕...그가 촉각을 드러낸 구석은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일가견을 진솔하게 토로하였다. 문학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다. 여기에 가식이 있다면 그것은 욕에 묻은 티라고 해야겠다.

사회생활에 대한 진솔한 고백, 여기에는 용기와 담량이 필요하다. 옛날, 그러니까 극《좌》시대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투도 썼고 글 한편 잘못 써서 옥살이도 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문학은 《앵무새》노릇을 해야 했고 《만세문학》이 되여야 했으며 소설이나 수필도 《시키는 서방질》만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진

실을 토할 때가 된것 같다. 잃어버린 용기를 다시 찾자. 이 점으로 볼 때 김두필씨의 이 수필집은 용기와 담량의 상징이요, 진실의 대변인것 같다.

다음은 진한 서정이다. 그가 쓴 《가을의 추억》은 매우 서정적이다. 그리 화려하지 않고 수채화같지는 않으나 고향에 대한 마음속의 화폭이 은은하게 깔린 소박한 서정, 어딘가 모르게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감칠맛 있는 글이라 하겠다.

수필에 서정의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서정이 없는 수필은 정론에 가깝다할것이다. 우리 문단에는 이런 수필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저자의 관점을 억지로 로출시키고 그 정당성을 억지로 설득시키려는 그런 수필, 한마디로 맛이 없는 수필이라 하겠다. 영양이 있는 음식도 우선 맛이 있어야 한다. 또 영양이 있다 하여 억지로 쑤셔넣을수도 없지 않는가.

김두필씨의 수필에는 이 량자가 잘 결합되어있다. 살과 옷, 그것이 뜬 기름과 물처럼 갈라져있어서는 안되며 자연스러운 융합체가 되어야 한다. 그의 서정은 매우 은은하며 문장도 그리 화려한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읽고나면 어딘지 모르게 끌리는 정이 있다. 내용의 정론성과 서정의 융합체가 수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한다면 시와 수필의 결합 또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해야 할것이다. 좋은 수필에는 반드시 시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늘 주장한다. 그것은 시와 그림이 결합되듯이, 그림에 시의(詩意)가 내포되지 않은 그림은 창백한 얼굴의 녀인이라고 느껴진다. 창백한 수필은 시의가 없다. 그것은 다만 맹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할가. 그런데 김두필씨의 수필을 잘 읽고 음미해보면 은근한 맛이 있고 어딘지 모르게 시적요소를 감득하게 된다. 내가 말하는 시의란 서정시적 화려한 미사려구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시적사색, 사회생활에 대한 철리적합의, 이런것들이 하나로 어울려 독자를 깨우치고 계발하는 심도있는 함의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로 김두필씨의 수필마다에는 인간이 서있다는 점이다. 그의 수필에는 각이한 인간의 형상들이 조각되어있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물론 문학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그의 수필속에 조각된 인간의 형태는 다양하다. 문인도 있고 간부도 있고 보통사람도 있고...그들이 모두 개성적이다. 물론 한편의 짧은 수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개성을 심각히 형상화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요구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한편의 수필에서 어느 특정인물의 개성의 한 모퉁이, 다양한 성격의 일각이라도 보여줄수만 있다면 다행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필들에는 개성이 없는, 혹은 전혀 무개성화된 글도 없지 않다. 물론 필자는 모든 수필에 다 그런 일면을 보여주어야 한다고는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필집에는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있음으로 하여 독자를 기쁘게 하고있다.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제 계속하여 제 2집, 제3집이 나오리라고 기대되는데 계속하여 수필을 쓴다면 무게가 좀 깊이 담긴, 독자의 마음을 쿡 찌를수 있는 그런 예리한 수필들을 써주기를 바란다. 좀 더 사색적이고 독창적인 견해가 있는, 감칠맛나는 수필이 우리 문단에 더 많이 나옴으로써 수필문단이 한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2006년 2월 10일
북경에서

■ 차 례

□ 서문

□ 책을 내면서	1
고향생각	3
사나이의 정성	9
《그림자》의 매력	13
《두만령감》이 남긴 《유산》	18
마음의 꽃다발	22
가을의 추억	27
모래인정	31
무명별찌	36
부자꿈이 싫을수가 있을가	43
아이디어는 돈이다	47
침묵의 정나미	51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자	56
그래도 꿈농사가 좋았지...	60

북대하의 유혹 ॥	66
죽젓광이의 《재주》 ॥	70
삶의 색깔 ॥	75
돌의 웃음 ॥	80
결딱이타령 ॥	86
만남의 감회 ॥	91
갑신년의 첫선물 ॥	95
홀로의 삶의 풍경 ॥	98
동전의 향기 ॥	102
《망발》의 미학 ॥	108
꼭 탓해야만 후련할가 ॥	113
선물의 진미는 무엇일가 ॥	116
뜨기봄이 남긴 여운 ॥	119
독서왕은 멋진 《왕》이다 ॥	123
천사의 마음 ॥	127
어울림속에 둥굴어갈거야 ॥	133

경쟁소나타 Ⅱ	137
어울려가는 인생 Ⅱ	141
선물이 아닌 《선물》 Ⅱ	145
두만강의 아들 Ⅱ	149
《석양노을》이 남긴 색조 Ⅱ	154
스승님의 손길 Ⅱ	158
《오동나무》의 향기 Ⅱ	163
독서풍경의 품잡기 Ⅱ	168
《개구리》의 꿈 Ⅱ	173
나눔의 이미지 Ⅱ	178
잊을수 없는 조선류학시절 Ⅱ	186
마인강반의 명주 Ⅱ	193
게르만인의 지혜 Ⅱ	201
풍차의 매력, 철탑의 향연 Ⅱ	208
해변가의 멜로디 Ⅱ	215
아리산의 메아리 Ⅱ	228

■ 책을 내면서

몇년전에 급한 사정으로 작품집을 한권 부랴부랴 내고 꼼꼼히 생각해보니 미흡한데가 많아 몹시 후회했었다. 이번에도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독자들의 호평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용기를 내보았다. 세상에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 많지 않겠지만 글농사만큼 힘든 일도 역시 드물것이다. 쌀농사야 하늘이 조화를 안부리면 풍년, 흉년이 따로 없을수도 있겠지만 글농사는 농사치고 여간 힘든 농사가 아니다. 내가 땀 흘리며 지은 글농사...아무리 따져봐야 곡식무지가 초라해보이고 영근 이삭이 한두이삭 보일가말가해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런대로 내 손으로 씨 뿌리고 김을 잡고 복을 돌구어주며 거둔 수확이라고 생각하니 얼마간 위안이 된다고 할가.

본래 수필이라는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며 실천속에서 그럭저럭 터득하면서 무딘 글쓰기를 하고있을따름이다. 《만세시대》의 《희생아》이자 《행운아》였던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희생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더기로 많았을뿐, 틈실히 배울 기회가 차폐되지 않았다. 그제나 이제나 힘겹고 어렵게 배워야만 하는 것이 주어진 운명의 배치라 할가. 송화강남안에 자리잡은 한 가난한 농가에서 밤을 깨며 동네의 소설책을 닥치는대로 빌려다보던

기억이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공부를 하겠다는 하나의 《천진》한 욕망으로 《월급쟁이》자리를 모두 물리치고 고학의 길에 나섰었다. 그뒤로 차츰 문학에 흥취를 가지면서 배우고 싶었고 또 배우다보니 한때는 이것저것 술덤벙물덤벙하다가 요행 마음을 가라앉힌것이 수필창작이라 하겠다. 하지만 형상사유가 결여된 나에게 있어서 그것마저 뜻대로 잘되지 않아 늘 고민하고있다. 그런대로 사회생활에서 직접 느끼고 감수한것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며 삶을 보다 충실히 해보자는 마음에서 나름대로의 열성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자신의 감수를 독자들이 깊은 감수와 감동을 받게끔 글로 엮는 작업은 보람이 있으나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 택한 길을 어렵다고 물려설수 없는게 역시 인생인가 본다.

늘 철학적인 사유방식으로 사회생활에 대해, 문학에 대해 관찰하며 시비를 잘 캐는 한 스승님으로부터 이따금 수필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병으로 너무 일찍 타계해서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 그분이 내 글을 몇편 읽어보시고는 서정과 의론이 부족하다고 따끔히 지적해준 뒤로 나름대로 미봉하느라고 애쓰지만 아직도 부족점이 많다. 이번 기회에 적지 않게 수정을 했다.

책을 내면서 바쁘신 와중에 서문을 써주신 김철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과분한 평가를 금후 노력의 목표로 삼고저 한다. 따라서 못난 글에 가끔 조언을 준 선배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싶다. 그리고 늘 곁에서 지켜봐 주고 힘을 보태준 나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신들매를 다시 조이게 된다.

2006년 2월

저자

고향생각

그 어디에 가나 고향을 잊지 못하는것이 인간의 상정인가보다. 태를 묻은 고향이라는 리유때문에 꼭 그러는것만은 아닐것이다. 이따금 농촌마을로 취재를 다닐 때면 저도 모르게 고향생각이 앞서군 한다. 하기가 개구쟁이 친구들과 함께 동년의 꿈을 심어보던 정든 고향도 역시 시골이니까...

열두살적에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났으니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아리송하리만치 흐리마리한 추억만이 남는 고향이지만 그리움만은 여전하다. 마침 북방의 이름난 석탄도시 계서시로 취재를 가야 할 기회가 있었다. 취재대상을 만나고보니 이외로 소학시절의 동창생일줄이야!

이들간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려다가 그만 동창생에게 단단히 잡히고말았다.

《오래간만에 고향문앞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다니? 괜히 고집을 부리지 말고 래일 나와 같이 고향마을로 가보자구. 친구들도 반가와할거야...》

《성의는 고마운데 지금이야 고양이 손도 빌려쓴다는 모내기철이여서...》

《그런 걱정은 그만두구 같이 가자구. 지금 농사엔 바쁜 철이 따로 없어.》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이미 내친 절음인지라 나는 동창생과 같이 저녁차로 고향행차길에 올랐다. 열차가 계관산모퉁이를 빠져 나가자 시원하게 트인 벌이 시야에 안겨들었다. 어릴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강으로 알았던 목룡강은 예나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있었으나 물빛은 1960년대의 아름답고 담담하던 정취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거무칙칙하게 오염되어있었다.

승객들은 말없이 강을 굽어보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강이 이렇게 오염됐으니 물고기가 적을수밖에. 전에는 어른들 손바닥만한 붕어나 잉어, 팔뚝길이만한 메기가 육설거렸는데...)

사람들은 장마당에 가서 비싼 물고기를 살 때에는 불부는 소리를 곧잘 하지만 오염된 강을 보고는 겨우 이마살이나 찌프리는 정도이다. 하기가 지구촌의 환경오염은 일개 백성이 걱정한다고 해서 당금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고향역에서 차를 내리자 벽돌집이 가물에 콩나듯 들판에 들어앉은 마을이 시야에 안겨왔다. 지금쯤은 온 마을이 울긋불긋 벽돌집으로 진작 바뀌었으리라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초라하고 볼품없는 초가가 너무나 많았다.

나의 아버지와 같은 세대들이 일본놈들의 개척단에 강박으로 뽑히여 땅이 쟁쟁 열어터지는 오동지선달 피나리보짐을 이고지고 오돌오돌 떠는 잔밭들을 이끌고와서 허허벌판에 대충 땅을 파고 땅굴막을 지어 부엌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정경이 이제는 아득히 먼 40년전의 옛일로 되었다. 옛말에 제 보금자리를 사랑할줄 모르는 새가 없다고 하더니 손바닥에 장알이 박이도록 키넘는 새초

를 베여내고 아름답리 고지개덩이를 하나들 뽑아내면서 피땀으로
결군 땅이여서인지 지금은 초라한 시골이 되었어도 내 고향마을
은 언제나 애뜻한 마음이 쏠리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가
부다.

일제놈들이 쫓겨가자 이리떼같은 사문동 토비놈들이 달려들
어 밀산쪽의 어느 조선족마을을 피바다로 만들며 《꼬리방즈》를
몽땅 죽이겠다고 살판치던 그 모진 세월에 고향사람들은 한사람
같이 뭉쳐 일떠섰다. 남성들은 손에 몽둥이와 사냥총을 잡고 녀성
들은 삼태기로 흙과 돌을 날라 토성을 높여가며 목숨으로 지켜온
고장이다.

이제는 땅굴막에서 살던 오랜 세대들이 거의다 세상을 뜨고
제2대, 제3대가 이 땅을 물려받았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세월의 부대낌속에서 1세대들의 창조물
이었던 구락부, 정미소, 철공소, 사무실과 학교는 그 형체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학교가 새 벽돌집으로 바뀐것은 다행이라 할가.
글쎄 촌의 구락부를 3년째 짓다가 아직 지붕공사를 마무리짓지
않아 벽체만 영성하게 서있는것이 실로 청송맞기 짝이 없다...

그날 저녁, 소학시절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줄레줄
레 모여들어 왁자그르르 이야기판을 벌리더니 나중에 이튿날 들
놀이를 가자고 합의를 보았다. 어릴적에 해마다 한번씩 다녀오며
황홀한 꿈과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놓던 곳으로.

이튿날 얼굴모습은 어렴풋이 떠오르나 이름이 거의 잊혀진
송아지친구들이 동부인하여 하나들 모여들었다. 나까지 모두 15
명이 흥이 도도해서 놀이터로 길을 다그쳤다.

한 녀동창은 전에 학급장을 맡았던 최동무에게 일찌감치 알
려주지 않아 꼭두새벽에 일어나 닭을 잡아가지고 오느라고 한바